

" 모든 종교간 위원회, 프란치스칸 일치 를 위한 공동위원회 "

" 예수회 의 가장 프란치스칸 적인 프란치스코 교황 님 이 높은 수준 을 과하시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교황명을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으로 택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세계 지도자 한사람으로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기념하고 성인의 유산을 활성화함으로 힘겹고 상처 많은 세상속의 크리스찬 적인 응답이 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성인 묘소에서 "모든 형제들 (Fratelli tutti)" 이라는 새 회칙에 서명하셨을 때는 "이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영적에너지를 북돋우기 위함"(266 항)이었다.

회칙의 첫마디 귀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형제애, 소박함, 기쁨 인 프란치스코 성인 에게 서 받은 영감 때문에 나는 "찬미 받으소서" 라는 회칙을 썼으며... 그리고 이 새 회칙을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위해 바친다. 성인은 성인이 가셨던 곳곳 마다 평화를 빌었고, 가난한이들, 배척된 이들, 약한자들, 버림받은 이들, 즉 가장 작은 이들 과 함께하셨다 (2 항).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의 수준을 높이 올렸으며, 모든 선의 사람들이 세상속에서 형제 자매애의 의식을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하였다. 전 세계의 프란치스칸 가족은 형제애적 대화와 서로 간의 신앙을 존경함으로 일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화는 간단한 외교보다 더차원이 높은 것이다. 인간을 하느님 창조물 하느님의 자녀로 존중하는 다른 종교들도 형제애를 키우며 사회 정의를 지키는 일에 크게 이바지한다. 서로 다른 종교 간의 대화는 단지 외교, 이해 나 관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의 주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대화는 우애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평화, 일치를 위해, 그리고 진실과 사랑을 가지고 영적, 도덕적 가치관 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 (271 항)

우리는 형제애의 삶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더 풍성하게 하는 열린 대화와 마음가지고 모든 사람들에 다가 가야한다. 우리는 어떻게 모든 사람 들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우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자. 형제애와 평화로 가는 여정에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절대로 무시하면 아니된다. 그것은 모든 종교의 신자들을 위한 종교의 자유이다. 그 자유는 우리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서로 다른 문화와 타종교를 이해할 수 있다고 외친다. 우리 서로 나누는 것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서로 간의 다른 점 들을 인정하며, 하느님의 자녀로 우리모두는 형제이고 자매인 것을 기뻐하며 조용하고 질서 있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그 자유 또한 증거한다 (279 항)

우리는 가톨릭신자로서 다른 종교인들이 선한일을 하는 것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할까? 성령의 힘으로 서로의 차이들이 해결된 풍요로운 화합을 교회 안에서 하도록 하느님께 간청하는 것이다. 1 코린 12,13 말씀 "모두 한 성령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와 같이 우리 개개인은 성령의 힘으로 특유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귀는 눈을 통해보고, 눈은 귀를 통해 듣는다" 라고 어거스틴 성인의 말처럼, 타종파의 그리스도인의 신앙 간증을 여실히 볼 수 있도록 만남의 여정이 지속되는 게 시급하다. 요한 17 장 21 절의 "그들이 모두 하나되게 해주십시오 "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그분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라는 과정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예언적 그리고 영적 화합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안타깝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한 화합을 위한 여정의 길을 아직도 가고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을 베풀고 함께 인류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80 항).

가톨릭 교회는 보편 형제애에 대해 가톨릭 신자가 해야 할 것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준다. 저는 개신교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성장과정에서 다른 영성들과 종파들을 많이 찾으려 다녔는데 당신은 제가 " 에큐메니칼 " 하게 성장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만남들은 "신"은 누구이고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 그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다. 재속 프란치스칸이 되고 싶은 성소가 저를 가톨릭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영화 "성 프란체스코" (Brother Sun, Sister Moon)을 본 후 저는 재속 프란치스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칸이 되기 위해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가톨릭 신자로 변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모든 부분들이 함께 엮여 풍족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진심 어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는 그분이 벌써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 우리는 함께 극복해 가야 하며 서로를 돌보고 지켜야 되는 공통된 목적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서로를 필요하며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아닌 "우리들"이라는 인간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모든 형제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끝맺음을 하십니다. "우리모두는, 서로 일치하고, 분열되지 말며, 증오를 소멸시키며, 증오에 매달리지 말며, 대화를 하며, 새로운 장벽을 세우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기능공이 되어야한다" (284 항)

우리는 모든 사람의 선량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이 설명한 것처럼 만남의 문화를 통해 희망을 회복하고 쇠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 상처 많은 세상을 위로의 말과 친절한 행위로 일치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또한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들이란 것을 인정하는 빛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 Donna Hollis, OFS, National Councilor-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

사랑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당신의 깊은 영적 삶을 통해 저희에게 풍성한 형제애를 주소서
예수님이 하신 활동속에서
예수님의 나자렛 가족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저희에게 주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살며,
개개인의 교류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세상의 방치된 자들 외면된 자들의 아픔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인 것을 인식하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형제자매들이 새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시어
저희가 쇠신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중요한 것이나 필요한 것들,
한 인류의 다양한 모습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아멘

**프란치스코 교황 직위 8년, 2020년 10월 3일,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 전야,
프란치스코 성인 묘소에서 바침.**